

‘명품 곡성체리’, 전국 소비자 입맛 공략



군, 출하 본격화...품질 균일화·고급화 완성 자체 개발 비가림시설 등 보유 경쟁력 강화

명품 곡성 체리가 수확에 들어가 소비자들의 입맛 공략에 나선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본격 체리 수확에 돌입, 곡성농협APC를 통한 공동선별 출하를 시작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체리 특화단지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한 초기 식재 과원

들이 본격적인 성숙기(열매가 잘 맺히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매년 출하량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준 45농가, 20ha규모에서 생산되는 곡성체리는 엄격한 공선출하 기준을 거쳐 균일화·규모화해 전국 최고의 프리미엄 체리 산지로 도약하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곡성체리의 경쟁력은 농업인의 재배역량과 생산인프라에서 나온다. 군은 2020년 ‘저비용 체리전용 간이비가림시설규격 3종’을 자체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다. 이를 통해 수확기 열과(비로 인해 열매가 터지는 현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도를 극대화했다.

아울러 수확기 지면에 반사필름을 피복하여 햇빛 반사율을 높임으로써, 선명한 빛깔과 고른 착색을 유도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수입산 체리와의 승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출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당도 17브릭스 이상, 착색도 70% 이상, 엄격한 3단계 크기 선별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고품질 체리만 시장에 선보인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곡성체리는 이미 대형마트 바이어와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 4월 기상 악화에 따른 냉해 피해로 착과량이 일부 감소해 아쉬움은 남는다”며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한 선별과 재배 인프라 관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전국 최고 품질의 명품 체리’만을 생산·출하하겠다는 각오로 농가 지도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중 곡성체리공선화장은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맞춤형 기술지도로 곡성체리가 지역 농가의 든든한 틈새 소득과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재배 난도는 높지만 소비자의 선호도가 확실한 과종인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 농가가 고품질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gwangnam.co.kr

진도·선진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 입국... 이달부터 농가 지원

진도군과 선진농협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최근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 30명의 입국을 지원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단기로 인력이 필요하거나 상시 근로자의 고용이 어려운 영세 농가도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농번기 등 농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들은 농작업과 안전교육 등 사전교육을 거친 뒤 관내 농작업 현장에 투입되며, 약 5개월간 체류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며 “선진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가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진도군과 선진농협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입국한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 모습. 사진제공=진도군청

강진 한국민화뮤지엄, 일본 순회전 주일한국문화원 등과 개최...10월까지 오사카·도쿄 전시

대한민국 전통 회화인 ‘민화’의 파격적인 현대성과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일본 현지에 널리 알리는 대규모 순회 전시가 막을 올린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과 강원 영월의 조선민화박물관은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주일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민화, 조선의 팝 아트’ 순회전을 개최한다.

이번 순회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투어링 케이-아트(Touring K-Ar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미라네 갤러리에서의 전시 이어 8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쿄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 美’에서의 전시까지 릴레이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국내 민화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획전시자 창작민화 화단의 혁신을 주도해 온 ‘민화의 비상’ 시리즈의 첫 해외 전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일본에서 선보이는 ‘민화, 조선의 팝 아트’전은 오슬기 한국민화뮤지엄 관장의 기획하에 2년간 진행된 시리즈 중 2022년과 2023년 주제를 해외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오슬기 관장은 “전 세계가 민화에 주목하는 이 시기에 일본의 대중에게 민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소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화의 대중화와 세계화라는 박물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영혜 주일한국문화원 원장은 “민화와 일본의 우케요에는 모두 삶의 현장에서 피어난 대중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아름다운 유산이다”며 “이번 전시가 일본 관람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와 현대적 역동성을 함께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담양,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담양군이 주소 식별 편의 향상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무상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는 주소정보시설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우편·택배 배송,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번 사업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가운데 훼손이나 망

실, 색바랜 등으로 주소 식별이 어려운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담양읍과 봉산면, 창평면, 용면, 월산면 일원에 설치된 노후 건물번호판 7039개를 정비했다.

올해는 자체 실태조사를 거쳐 대덕면과 금성면, 무정면을 중심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2420개를 교체할 계획이다.

담양=이수사 기자 lss270@gwangnam.co.kr

화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이동식 대형 양수기’ 도입

분당 최대 4500ℓ 배수...침수 취약지 투입

화순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동식 대형 양수기 도입, 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청사 앞 인공폭포 광장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이동식 대형 양수기 가동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범 화순부군수를 비롯해 경찰·소방, 한국농어촌공사, 한곡전력공사, 제7391부대 관계자와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난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신규 도입된 이동식 대형 양수기의 실제 가동 성능을 확인했다.

이번에 도입된 이동식 대형 양수기는 40마력 토목용 디젤 엔진을 탑재해 분당 최대 4500ℓ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해 침수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으며, 대용량 배수 작업이 가능해 도로와 주택, 농경지 등 침수 우려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집중호우 예보 시 침수 취약지역에 장비를 사전 배치해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



여름철 자연 재난대비 이동식 대형 양수기 시연회 모습. 사진제공=화순군청

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호범 화순군 부군수는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대응 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 방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나주의 시간과 이야기 예술로 잇다

18일까지 나주작은미술관서 청년작가 특별전

나주시가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나선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의 전시가 오는 18일까지 나주작은미술관 4동과 5동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이야기가 깨어나고 결국 우리를 하나로 잇다’를 주제로 우리가 살아온 자리와 머물렀던 시간, 반복되는 일상에서 축적된 나주만의 이야기를 청년작가들의 진솔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전시에는 김소윤, 서병주, 안한울, 오경민, 정경진, 최요안 청년작가 6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각자의 경험과 시선을 바탕으로

로 익숙한 공간과 풍경을 새롭게 해석하며 관람객들에게 공감과 사유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회화와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들을 통해 동시대 청년 예술의 감각을 선보인다.

전시 공간은 작품 간 서사의 흐름과 연결성을 고려해 구성했으며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전시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작품에 투영하는 몰입감 있는 감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을 예술적으로 재조명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함평,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자 모집

12일까지 접수...임대 기간 2년·보증금 240만원

함평군이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월 임대료 1만원에 집을 빌려주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함평군 ‘만원 세컨하우스’는 학교변과 해변면 각 1세대씩 총 27가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 240만원과 월 임대료 1만원(2년 일시납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함평군에 전입 예정인 2인 이상 가구다. 전남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하며, 세대원을 포함해 전남 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군은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을 거쳐 입주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